

TSG

월간

2022

10



K LEAGUE

2022 K LEAGUE TECHNICAL REPORT
TSG MONTHLY MAGAZINE

[TSG's 픽] 베스트 플레이어

**다시 시작된 전북의
후반 상승세, 그 중심에는
바로우가 있다**



03 K리그 월간 데이터·순위

06 K리그 월간 오버뷰

08 [TSG's 픽] 베스트 팀

최단기간 내 '우승'
이정호 감독은 광주FC를
어떻게 변화시켰나

12 [TSG's 픽] 베스트 플레이어

다시 시작된 전북의 후반 상승세
그 중심에는 바로우가 있다.

16 [TSG's 픽] 베스트 매치

'풀소유(서울) vs 무소유(대구)'
전술적 대척점에 있는
두 팀의 맞대결

20 TSG 기술위원 칼럼

K리그 강등권에서 살아남기
<이기형 기술위원>

24 TSG's TOPIC

강원FC의 '파이널A 진출',
기적이나 요행이 아니다



K LEAGUE

2022 K LEAGUE TECHNICAL REPORT
TSG MONTHLY MAGAZINE

발행처 | (사)한국프로축구연맹

데이터 | BEPRO11

기획 | K리그 TSG

편집 및 디자인 | 그래픽레시오

사진 | FPhotos

발행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46 축구회관 5층

발행일 | 2022년 10월 14일

- 이 책의 저작권은 (사)한국프로축구연맹에 있습니다.
- 이 책에 실린 사진은 FPhotos가 제공한 것으로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 (사)한국프로축구연맹의 사전 허가 없이 책 내용의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 이 책에 사용된 K리그 기록은 (사)한국프로축구연맹의 K리그 공식 기록과 BEPRO11의 K리그 부가 기록 기준에 따릅니다.

K리그 1 순위표(09.30)

	경기 수	승점	승	무	패	득실
1 울산현대	33	66	19	9	5	20
2 전북현대	33	61	17	10	6	16
3 포항스틸러스	33	55	15	10	8	13
4 인천유나이티드	33	49	12	13	8	6
5 제주유나이티드	33	46	12	10	11	4
6 강원FC	33	45	13	6	14	0
7 수원FC	33	44	12	8	13	-2
8 FC서울	33	41	10	11	12	-4
9 대구FC	33	35	7	14	12	-10
10 김천상무	33	34	8	10	15	-1
11 수원삼성	33	34	8	10	15	-11
12 성남FC	33	25	6	7	20	-31

K리그 2 순위표(09.30)

	경기 수	승점	승	무	패	득실
1 광주FC	37	81	24	9	4	32
2 대전하나시티즌	36	64	18	10	8	20
3 FC안양	37	63	17	12	8	9
4 부천FC1995	37	60	17	9	11	12
5 경남FC	37	50	14	8	15	0
6 충남아산FC	36	48	12	12	12	-1
7 서울이랜드FC	36	45	10	15	11	1
8 김포FC	38	38	9	11	18	-24
9 안산그리너스	38	37	8	13	17	-15
10 전남드래곤즈	36	31	5	16	15	-11
11 부산아이파크	38	30	7	9	22	-23

K리그 득점 데이터

		xG	슈팅	득점	득점/xG	실 득점 - xG
1	대구FC	9.58골	80회	7골	0.73골	-2.58골
2	전북 현대	8.88골	59회	11골	1.24골	+2.12골
3	제주유나이티드	6.95골	75회	7골	1.01골	+0.05골
4	FC서울	6.05골	56회	4골	0.66골	-2.05골
5	포항스틸러스	5.9골	58회	9골	1.53골	+3.1골

K리그 점유 데이터

		점유율	평균 패스 횟수	시퀀스당 패스	시퀀스당 시간	시퀀스 전개 속도
1	울산현대	61.5%	586회	4.38회	13.92초	9.09 _{m/s}
2	FC서울	61.1%	588회	4.57회	14.36초	9.4 _{m/s}
3	김천상무	59.8%	567회	4.38회	14.58초	8.28 _{m/s}
4	포항스틸러스	59.7%	582회	4.45회	13.65초	9.42 _{m/s}
5	제주유나이티드	58.1%	569회	4.1회	12.94초	10.62 _{m/s}

K리그 압박 데이터

		압박 강도(PPDA)	획득	공격 지역 획득	인터셉트	태클(성공)
1	포항스틸러스	6.41	53.8회	17.4회	34.2회	6회
2	울산현대	6.93	49.6회	15.4회	38.6회	6회
3	FC서울	7.48	46.6회	16회	36.6회	6회
4	전북현대	7.56	52.4회	17회	34.4회	7.8회
5	제주유나이티드	7.64	58회	19.2회	40회	8.2회

기대득점(xG) | 득점 슈팅 찬스가 득점으로 연결될 확률을 의미. xG값은 슈팅 위치 및 각도, 연결된 패스 등 여러 변수에 따라 결정됨

시퀀스 | 볼 소유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연속적인 행위의 모음. 시퀀스의 시작은 골 볼 점유의 시작이며 상대의 수비, 슈팅, 볼 아웃 등의 상황에 종료.

압박강도(PPDA) | 전방 압박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상대방 골리인으로부터 60% 지역 이내에서의 상대방 패스 시도 횟수 당 수비 시도 행위로 계산됨

K리그2 득점 데이터

		xG	슈팅	득점	득점/xG	실 득점 - xG
1	전남드래곤즈	10.64골	71회	11골	0.36골	+0.36골
2	서울이랜드FC	10.4골	84회	12골	1.6골	+1.6골
3	대전하나시티즌	7.32골	52회	9골	1.68골	+1.68골
4	광주FC	6.94골	60회	10골	1.44골	+3.06골
5	안산그리너스	6.63골	53회	8골	1.21골	+1.37골

K리그2 점유 데이터

		점유율	평균 패스 횟수	시퀀스당 패스	시퀀스당 시간	시퀀스 전개 속도
1	광주FC	61.8%	499회	3.47회	11.45초	17.83 _{m/s}
2	경남FC	55.0%	450회	3.2회	10.89초	10.53 _{m/s}
3	부천FC1995	53.7%	445회	3.09회	9.85초	11.56 _{m/s}
4	부산아이파크	52.5%	467회	3.46회	11.27초	11.26 _{m/s}
5	전남드래곤즈	52.1%	424회	2.82회	8.68초	13.29 _{m/s}

K리그2 압박 데이터

		압박 강도(PPDA)	획득	공격 지역 획득	인터셉트	태클(성공)
1	전남드래곤즈	5.54	57.4회	18.8회	44.4회	7.8회
2	광주FC	5.73	60.2회	19.2회	32.5회	9.5회
3	서울이랜드FC	6.11	63.6회	16.3회	40.7회	7.3회
4	FC안양	6.16	63회	16.8회	40.4회	5.4회
5	부천FC1995	6.76	62.2회	20.5회	39.7회	10회

K LEAGUE OVERVIEW

어느덧 2022시즌 K리그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간다. K리그1에서는 정규 라운드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전북은 울산과의 승점 차이를 5점으로 좁히며 선두권 탈환에 가속을 붙였으며, 강원이 파이널A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는데 성공했다. 한편 K리그2에서는 광주가 우승을 확정 지었다. 이제 경남과 충남아산, 서울E가 마지막 플레이오프 출전권을 따내기 위한 경쟁을 시작한다.



1위 탈환을 노리는 전북의 막판 스퍼트

K리그1의 막바지가 다가오자 전북이 1위 탈환을 위한 가속도를 붙이기 시작했다. 전북은 9월 한 달간 3승 2무를 기록하며 K리그1 내에서 가장 많은 승점을 따낸 팀이 됐다. 1위 울산과의 승점 차이도 4점이나 좁혔다. 팀의 핵심 윙어 바로우가 6골 1도움을 기록하며 전북 공격의 핵심이 됐으며, 대구전 5대 0 승리라는 인상적인 경기도 남겼다. 8월에 잠깐 주춤했으나 9월을 기점으로 디펜딩 챔피언다운 결과를 다시 가져오기 시작한 전북이다.



파이널A 마지막 자리를 차지한 강원

파이널A 마지막 자리의 주인공은 강원이었다. 정규 라운드 최종전에서 제주를 2대 1로 꺾으며 6위 자리를 차지하는데 성공했다. 시즌 초 좋지 않은 출발을 보이며 리그 11위 자리까지 내려가기도 했으나, 7월을 기점으로 경기력이 크게 올라오며 상황을 반전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번 9월에도 5경기 중 3승을 거둬 K리그1에서 세번째로 높은 승점을 따냈다. 파이널A에서 마주하게 될 인천과 제주를 상대로 모두 승리했다는 점이 강원의 파이널A를 더욱 기대하게 만든다.



끝내 웃지 못한 서울의 '익수불', 올해도 파이널B로

이번 시즌 서울은 '결과를 내지 못하는 팀'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다. 점유율, 기대 득점, 패스 등의 각종 지표에서는 상위권을 기록하나 경기 결과가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은 파이널A-B의 분기점인 이번 9월에도 5경기 중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하며, 파이널A에 진출하지 못했다. 정확히 한 달 전 서울은 수원FC, 강원과 동일한 승점(36점)으로 6~8위에 위치했으나, 결국 9월이 끝난 시점 8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역대 최단기간 우승', 1년만에 재승격에 성공한 광주

광주가 K리그2 우승을 확정지었다. 무려 역대 K리그2 최단기간 우승이다. 2위 대전을 승점 17점 차이로 따돌리며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했다. 광주는 9월 4경기에서 전승을 거두며 성공적인 마무리를 거뒀다. 특히 리그 우승이 확정되고, 치른 안산전에서도 100% 전력을 다하며 3-0 대승을 기록한 것이 인상적이다. 광주는 지난 8월 안산과 전남, 부천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잠깐 흔들리는 듯 했으나, 9월 전승을 통해 우승팀의 저력을 확실히 보여줬다.



더욱 뜨거운 플레이오프를 예고하는 대전

한편 대전 역시 이번 9월 무패를 기록한 팀 중 하나다. 9월 3승 2무를 거두며 안양의 2위 자리를 탈환하는데 성공했다. 대전의 9월 성적 이 반가운 이유는 이번 시즌 내내 따라다녔던 '원정 징크스'를 깨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5월 28일 서울E전 이후로 꺾 원정 승리를 거두지 못하다가, 9월 부산전과 안양전 원정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따내며 징크스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했다. '원정 징크스'를 깨는데 성공한 대전은 이 기세를 플레이오프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



플레이오프 출전권 경쟁에 합류한 서울E

한편 중위권에서는 서울E의 상승세가 눈에 띈다. 9월 한 달간 4승 1무 1패를 거두며 중위권 플레이오프 경쟁에 본격적으로 합류했다. 이번 시즌 서울E가 한 달간 거둔 최다 승리다. 5위 경남과의 승점 차이는 5점 차. 서울E가 경남보다 한 경기 덜 치렀기 때문에, 5점은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차이다. K리그2 마지막 정규 일정까지는 4경기가 남은 상황. 플레이오프 출전권의 마지막 자리를 노리는 표범군단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최단기간 내 '우승' 이정호 감독은 광주FC를 어떻게 변화시켰나



광주FC가 잔여 경기를 4경기나 남겨두고도 우승을 확정 지었다. 무려 K리그2 역대 최단기간 내 우승 기록이다. 시즌 전 미디어데이에서 11명의 K리그2 감독 중 그 누구도 광주를 우승 후보로 예상하지 않았을 정도로 광주는 결코 우승 후보로 손꼽히는 전력이 아니었다. 심지어 이정호 감독의 데뷔전인 시즌 첫 경기에서 창단팀 김포FC를 상대로 패배하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그러나, 광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단 1년 만에 K리그1 복귀를 신고하게 되었다.

가장 주목할 점은 광주가 1년 만에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우선, 선수단 자체가 대거 물갈이되었다. 알렉스, 이한도, 김원식, 윤보상, 엄원상 등이 떠난 주전 자리에는 안영규, 이상기, 박한빈, 김재봉, 아론 등이 영입되어 메워졌다. 여기에 신인 정호연이 콜업되어 중원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으며, 여름에는 산드로를 추가 영입하여 전방을 보강했다. K리그2 강등에도 올해도 광주를 지킨 엄지성, 김중우, 이순민, 허을 역시 우승의 주역들이다.



이정호 감독 전술에 따른 경기력 변화 역시 매우 인상적이다. 광주는 1년 만에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팀으로 변모했다. 지난 시즌 K리그1에서는 4-4-2 기반의 빠른 역습 축구를 구사했다. 4-4-2로 깊게 내려서 공간을 지킨 이후 측면의 엄원상과 김주공의 빠른 스피드를 내세운 역습이 광주의 주 무기였다. 그러나 이번 시즌은 3-4-3 기반의 점유 축구를 펼치는 것이 특징이다. 후방에서부터 점진적인 빌드업을 추구하며, 선수들 간의 유기적인 위치 변화를 통해 상대 수비를 깨부순다.

이정호 축구의 핵심, '좋은 공간'

이정호 감독은 항상 '좋은 공간'을 점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반은 '볼이 아닌 공간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점이다. 이정호 감독은 "공격 시에는 우리가 좋은 공간을 점유하고, 수비 시에는 상대가 나쁜 공간으로 가도록 유도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필드 위의 좋은 공간을 우리가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광주는 공격 시 3-2-5 대형을 형성한다. 기존 3-4-3에서 양 윙백이 높게 전진한 형태다. 선수들 간의 전술적인 움직임을 통해 옵션을 만들어주고, 이를 기반으로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는 것이 특징이다. 전술적 결속력 자체가 매우 뛰어난 탓에 선수들 간 포지션 스위칭 역시 매우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편이다.

광주는 필드 위에서 항상 수적 우위를 형성하려 하는 팀이다. 전술적 기반은 다음과 같다. 빌드업 시 두 중앙 미드필더는 수비 라인으로 내려와 중앙 센터백과 볼을 주고받을 수 있게끔 한다. 두 중앙 미드필더의 위치상 좌우 센터백이 측면으로 넓게 벌려 설 수 있으며, 양 윙백은 더욱 높은 지점에서 상대 수비 라인과 맞닿을 수 있다. 한편 양 윙어는 3선 미드필더가 내려간 탓에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한다. 좌우 센터백과 양 윙백이 측면으로 전진했기 때문에 중앙 쪽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핵심은 윙어와 윙백의 역할 분담이다. 윙어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받아내려 하고, 양 윙백은 전방에 깊게 위치해 상대 수비 라



광주의 기본적인 공격 형태. 3-4-3 내에서 변형이 이뤄진다.

인에 붙어있어야 한다. 이 경우, 상대 수비가 광주의 잉어를 타이트 하게 수비할 때 자연스럽게 광주의 침투 루트가 열리게 된다. 1선의 윙백과 중앙 공격수 모두 상대 하프 스페이스의 뒷공간을 노릴 수 있는 것이다. 광주의 잉어를 방치한다면 전진 패스 옵션이 너무나도 손쉽게 열리게 된다.

상황에 따라 중앙 공격수까지 상대 수비-미드필드 지역까지 내려와 적극적으로 볼을 받아내려 한다. 보다 전체적인 틀에서 보자면, 중앙-하프 스페이스 쪽 선수들은 연계를 위한 위치를, 측면 쪽 선수들은 공간 쇄도에 용이한 포지션을 점하는 것이다. 이 경우 측면 선수들을 통해 상대 수비 라인을 누르면서 중앙 쪽에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다.

광주의 2가지 수적 우위 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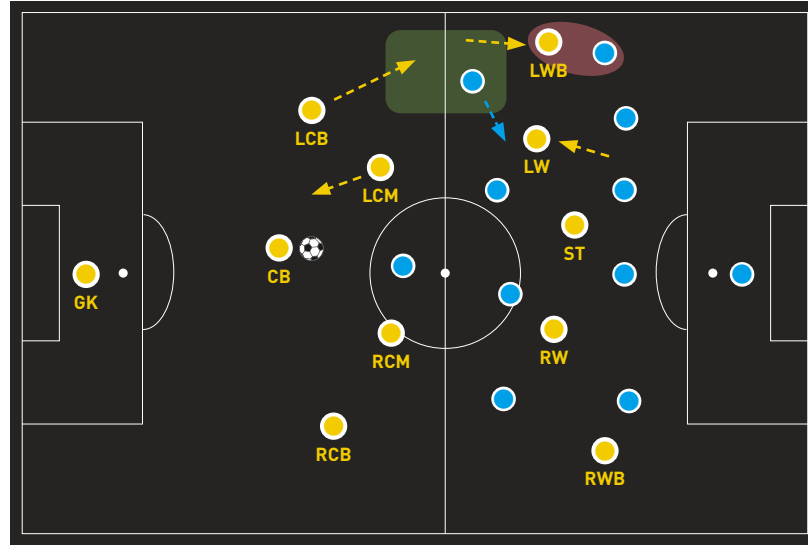
광주의 이러한 공격 형태는 크게 2가지 지점에서 수적 우위를 형성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센터백이 위치한 후방 중앙 쪽이다. 기본적으로 2명의 미드필더가 내려와 센터백의 옵션을 만들어주는 탓에 상대 톱 자원을 상대로 볼을 전진시킬 수 있다. 중앙 미드필더는 최후방에서 볼을 받아 이곳에서부터 공격의 시발점이 된다. 전방으로 볼을 배급할 수도 있으며, 직접 치고 나갈 수도 있다. 광주의 중원에는 패스와 기술이 뛰어난 정호연과 김종우가 있다.

반대로 '센터백이 볼을 소유한 상황'에서 두 미드필더가 내려와 센터백의 공격 옵션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센터백이 미드필더에게 직접 패스를 전개할 수 있으면서도, 전방으로 직접 볼을 몰고 나갈 수 있는 선택지도 생기게 된다. 광주는 상황에 따라 후방으로 내려오는 미드필더 숫자(1~2명)를 조절하며 유연하게 수적 우위를 형성하는 편이다.

38R 전남전에서 넣은 선제골이 이러한 전술적 움직임이 잘 드러난 사례다. 중앙 센터백인 박한빈이 볼을 소유한 상황에서, 중앙 미드필더 김종우가 순간적으로 내려와 박한빈에게 옵션을 만들어줬다. 김종우에게 백패스를 건네거나, 후방의 김종우를 믿고 전방으로 치고 나가는 2가지 선택지다. 전방으로 볼을 치고 나간 박한



광주의 38R 전남전 득점 장면. 광주의 전술적 움직임이 잘 드러났다.



광주의 측면 수적 우위 형성 방식. 상대 측면 미드필더는 중앙 패스 코스를 제한하는데 치중한다. 윙백은 높게 전진해 상대 측면 수비를 잡아놓은 상황. 광주의 좌우 센터백이 전진해 측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빈은 잉어 위치의 두현석에게 손쉽게 전진 패스를 전개하며 골 장면의 시발점이 됐다.

이때 전방 잉어 두현석 역시 주목해야 한다. 두현석은 본래 1선 잉어 자리에 위치했었지만 박한빈이 볼을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란 것을 인지하고 빠르게 측면으로 빠져나와 공간을 선점했다. 이때 마크맨인 전남의 왼쪽 센터백은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두현석을 타이트하게 수비 할 수 없었다. 두현석에 끌려 나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광주의 윙백과 공격수가 뒷공간을 쇄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술적 흐름 속에서 전방의 두현석 역시 자유로운 상태에서 볼을 받아낼 수 있었다.

핵심은 중앙 센터백인 박한빈이다. 이번 시즌 박한빈은 K리그 2 센터백 중 '드리블 성공(8회)', '공격지역으로의 패스 성공(210회)', '공격지역 전진 패스(52회)'의 수치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박한빈은 이정호 감독에게서 "포지션에 신경 쓰지 말고 과감하게 공격에 가담하라."라는 주문을 들었다고 밝혔다. 정호연과 김종우, 박한빈 모두가 후방에서부터 언제든지 빌드업을 주도해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것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광주가 수적 우위를 형성하는 두 번째 지점은 측면이다. 두 중앙 미드필더가 깊게 내려오는 탓에 좌우 센터백이 측면으로 넓게 벌리고 전진성을 갖출 수 있다. 이때 넓은 측면을 점유한 광주의 좌우 센터백은 대개 이곳에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측면 잉어와 윙백의 위치 때문이다.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대개 측면 미드필더를 좁혀 광주 잉어에게 향하는 패스 코스를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서 얘기했듯 센터백을 통해 광주 잉어를 수비하다간 뒷공간을 내주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측면 미드필더가 좁혀 패스 코스를 막아선다면

센터백이 후방을 지킬 수 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측면으로 넓게 벌린 광주의 좌우 센터백에게 공간이 만들어진다. 측면의 센터백은 공간을 확보받은 채 볼을 받아낼 수도 있으며, 뒷선으로 전진해 수적 우위를 형성할 수도 있다. 보다 큰 틀로 놓고 보자면 광주가 좌우 센터백을 프리맨으로 설정해 측면에서의 수적 우위를 형성한 것이다.

광주는 이러한 좌우 센터백의 공격 가담을 통해 측면에서 공간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반대 전환을 빠르게 시도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넓이가 확보되어있는 탓에 볼만 빠르고 정확하게 전개된다면, 위협적인 반대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 양 센터백이 반대 전환의 기점이 되어줄 수도 있고, 반대 윙백에게 롱 볼을 전개할 수도 있다.

광주는 공격 1/3 지점에서 측면 지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다. 기본적으로는 반대 잉어가 옆쪽으로 틀어 빠져 공간을 확보받는 형태를 보인다. 3선의 중앙 미드필더 역시 언제든지 측면으로 빠져 숫자를 확보해줄 수 있으며, 이곳에서의 볼 점유를 통해 상대 수비를 끌어들이고 중앙 쪽에 간격을 만들어낸다. 측면에 숫자가 확보된 상태에서 볼을 주고받는다면 상대 수비가 끌려 나와 중앙 지역의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광주는 이때 노출된 중앙 지역 간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다. 광주가 측면에서 볼을 소유하고 있다면, 중앙 공격수는 상대 수비 시야 뒤편에서 은밀히 움직여 벌어진 중앙 공간에서 볼을 받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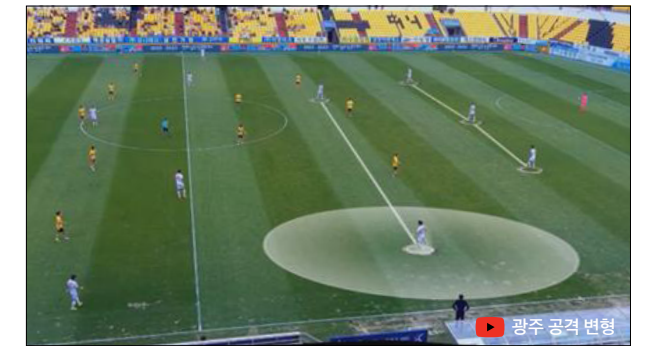
영상 속에서 광주는 측면 숫자 확보를 2가지 형태로 활용했다. 하나는 빌드업 과정에서 빠른 반대 전환을 시도한 것이고, 또 하나는 공격 1/3 지역에서 상대 수비를 끌어들이고 벌어진 간격을 공략한 것이다.

공격 전술의 변형

광주의 전술은 필드 위 수적 우위 형성을 기본으로 하지만, 경기 중 상황에 따른 전술 변화도 유연하게 가져가는 편이다. 가령 최근에 펼쳐진 39R 안양전이 그 대표적인 예다. 안양은 본래 5-4-1을 통해 후방으로 내려앉은 팀이지만, 이날은 5-2-3 대형 속에서 강한 전방 압박을 펼쳤다. 광주는 이에 대해 빌드업 시 중앙 미드필더 한 명을 최후방 라인으로 내리는 변화를 보였다. 후방에서 안양의 3톱을 상대로 4v3 수적 우위를 형성하여 빌드업의 안정성을 확보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의 광주는 3-2-5가 아닌 4-1-5에 가까운 형태로 빌

드업을 펼쳤다.

광주가 공격 중에 시도하는 변형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빌드업 시 중앙 미드필더가 측면으로 빠져 공간을 확보받는 것이다. 3-2-5로 공격을 시작하되, 측면에서 위치 변화가 잘 이뤄지지 않을 때 중앙 미드필더가 빠르게 측면으로 빠져 빈 공간을 점유한다. 다시 말해 '측면 프리맨'의 주체를 중앙 미드필더로 설정하는 것이다. 좌우 센터백은 후방에 위치해있으며, 윙백은 1선에 깊게 박혀있다. 중앙 미드필더가 측면으로 빠져 센터백과 윙백 사이 지역을 점유하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광주는 7월 27일 부산전에서 이러한 형태를 주요 빌드업 전술로 활용하기도 했다.



광주의 공격 변형 방식 2가지. 중앙 미드필더의 측면 가담과 센터백의 공격 가담.

광주가 보이는 또 하나의 공격 변형은 센터백이 전방 공격 상황에 직접 가담하는 것이다. 후방에 위치해 있다가 단숨에 전진하여 뒷선의 수적 우위를 만들어주는 형태다. 이는 세 명의 센터백 모두가 상황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다. 정해진 선수 간의 역할이나 패턴은 없다. 중앙의 박한빈이 전진할 수도 있고, 양옆의 아론이나 안영규가 전방 높은 위치까지 이동할 수도 있다. 핵심은 이러한 전술적 움직임이 중앙 미드필더의 후방 가담과 맞물려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후방에서의 숫자를 확보해 상대 역습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정호 감독의 축구 철학이기도 하다. 이정호 감독은 1월 전지 훈련 때부터 "공격수에게 수비를, 수비수에게 공격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말을 해왔다. 공격수라서 수비하지 않는 것도 아니며, 수비수라서 공격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이정호 감독은 선수들이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1년 전 광주는 K리그1 무대에서 강등이라는 고배를 마셔야 했다. 당시 유일한 30점대 승점 팀이었으며, 실점도 가장 많았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광주는 이정호 감독 아래서 완전히 다른 팀으로 재탄생하며 K리그2 새 역사를 쓴 주인공이 되었다. 이제 다시 K리그1 무대이다. 이정호 감독은 K리그1 시험대에서도 증명해 낼 수 있을까. '이정호 축구'는 벌써부터 다음 시즌 K리그1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이다. **K**



다시 시작된 전북의 후반 상승세 그 중심에는 바로우가 있다.

파이널 라운드를 목전에 둔 9월. K리그에 가을이 찾아올 때면, 선두권에는 익숙한 향기가 불어온다. 1위 울산이 주춤하고 전북이 '1위 탈환'을 위해 그 뒤를 쫓는 그림이다. 전북은 지난 2019년과 2020년 9월에 울산의 1위 자리를 탈환한 기억이 있다. 2021년에는 파이널 라운드에 들어서 순위를 뒤집었으며, 올해는 9월 한 달간 승점 차이를 4점이나 좁혔다.

이번 9월 '1위 탈환'을 다시 노리는 전북의 중심에는 바로우가 있었다. 바로우는 9월 한 달간 6골 1도움을 기록하며 전북 전체 득점의 절반 이상을 담당했다. 9월 이전까지 이번 시즌 바로우의 전체 득점이 단 5골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더욱 인상적인 기록이다. 바로우는 이번 한 달간 어떻게 6골을 몰아넣으며 전북 반등의 중심이 됐을까.

전북의 '측면 강패'

바로우는 특색이 명확한 선수다. 빠른 스피드를 보유해 측면을 따라 움직인다. 주요 포지션은 왼쪽 윙어이며, 매우 직선적인 스타일이다. 전북은 바로우가 측면 터치라인 가까이에서 치중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종종 왼쪽 윙백인 김진수를 안쪽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전진시킨다. 이는 김진수가 A대표팀 내에서도 맡아왔던 역할이기도 하다. 이번 시즌 김진수는 종종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득점 찬스를 맞이하기도 했다.

전북은 빌드업 시 4-3-3 대형을 형성한다. 왼쪽 윙어 바로우는 측면으로 넓게 벌려 공격의 폭을 확보해 주는 역할이다. 바로우가 터치라인 쪽으로 넓게 벌려있는 탓에 왼쪽 윙백 김진수는 빌드업 시 후방에 머무르는 경우가 잦으며, 이에 따라 반대 윙백인 김문환/최철순이 높게 전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오른쪽 윙백이 높게 전진한다면 오른쪽 윙어 한교원이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며 상대 뒷공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수 있다.

바로우는 명백하게 직선 성향의 윙어다. 일반적인 플레이 스타일은 측면으로 넓게 벌려 공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상대 윙백과의 1v1 상황을 만들어낸다. 바로우는 팀 내에서 드리블 시도가 가장 많은 선수다. 스피드가 좋아 상대 윙백의 시야 뒤편에서 뒷공간을 파고들 상황이 나오면 주저 없이 침투를 시도하기도 한다. 상황에 따라 하프 스페이스로 좁혀 들어오기도 하지만, 바로우는 명백하게 측면에서 더욱 위협적인 선수다.



바로우의 기술적 역할. 측면으로 넓게 벌려 상대 윙백을 끌어들이고, 동료 선수들이 벌어진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듯 측면으로 넓게 벌려있는 바로우로 인해 상대 윙백이 끌려 나온다면, 전복은 순간적으로 벌어진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전복은 김진수의 언더래핑을 활용하거나 4-3-3의 좌우 중앙 미드필더를 전진시켜 이 지역을 공략해왔다. 이는 지난 시즌 말 전복이 4-3-3 전술로 전환하면서 만들어진 주요 패턴 중 하나다.

바로우의 이러한 성향 탓에 전복이 중원에서 점유가 필요한 경기에서는 다른 선수를 활용하기도 했다. 9월 7일 30R FC서울과의 일전이 그 대표적인 예시다. 서울은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적극적인 압박을 통해 높은 지점에서 수비하는 팀이다. 전복은 서울의 뒷공간을 공략하기 위해 문선민을 중앙 공격수 자리에 배치했으며, 왼쪽 윙어 자리에는 이승기를 활용했다. 압박을 나서는 서울 미드필더 라인의 배후 지역을 공략하기 위함이다. 이 경우 윙어 이승기가 2선 쪽 연계에 집중하고, 문선민이 1선에 붙어 상대 뒷공간을 집중적으로 노리는 것이 가능했다.

바로우가 개인 사정으로 결장한 8월 수원FC와 인천전에서는 4-2-2-2 기반의 강한 점유 게임을 펼친 바 있다. 중원 미드필더들이 자유롭게 움직여 중원에서의 수적 우위를 형성하고 유기적인 패스 옵션을 만들어주는 형태다. 이 경우 미드필더들이 중원에 치중한 탓에 전복의 넓이 담당은 자연스럽게 양 윙백이 됐다.

역습의 돌격 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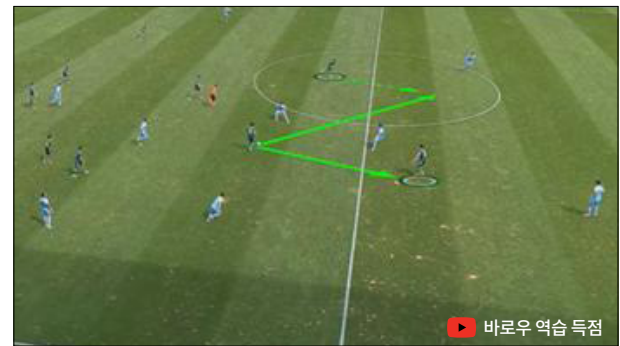
바로우의 빠른 스피드가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은 단연 역습 상황이다. 일반적인 공격 전개 시에는 측면으로 넓게 벌려 동료 선수들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지만, 역습 시에는 바로우가 안에서 볼을 받는 상황이 많아 득점에 관여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수비 시에는 선수들 간의 좁은 간격을 형성하는 탓에 바로우가 보다 필드 안에서 위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 문전까지 볼을 운반할 수도 있고, 수비 뒷공간으로 쇄도해 직접 득점을 노릴 수도 있다.

전복은 역습 시 바로우의 영향력을 살리기 위해 측면 미드필더

와 중앙 공격수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편이다. 전복이 볼을 탈취할 때면, 중앙 공격수가 연계에 치중하고, 바로우가 전방 공간으로 쇄도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역습 시 바로우의 스피드를 최대로 활용하기 위한 전복의 역할 분담이다. 이 경우 상대 수비가 볼을 받아내려는 전복 중앙 공격수의 움직임에 유도당해 바로우에게 공간이 열리기도 한다. 바로우는 수비 시 상대 윙백이나 센터백을 마크하다가도, 전복이 볼을 탈취할 때면 빠르게 뒷공간으로 뛰어 들어가 동료 선수들의 볼을 받아낸다.

실제로 전복은 9월에 들어서며 점유율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획득'과 '공격 지역 획득', '차단' 지표에서 모두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경기 중 맞이하는 수비 시간 자체는 비슷하나 그 안에서 상대 볼을 탈취하는 횟수가 더욱 많아졌다는 뜻이다. 이는 곧 전복이 맞이하는 역습 상황 자체가 많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전복의 역습 횟수가 잦아지니 바로우가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 또한 많아지게 됐다.

바로우의 존재로 인해 전복은 오른쪽 진영을 수비하는 상황에서 더욱 위협적인 역습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전복이 오른쪽에서 수비할 경우, 왼쪽의 바로우가 수비 부담을 덜고 더욱 높은 지점



바로우의 31R 대구전 득점 상황. 전복이 볼을 탈취하자, 곧바로 뒷선으로 전진해 볼을 받아내려 한다. 중앙 공격수 조규성은 볼을 받아내려는 액션을 취하는 상황. 상대 미드필더가 조규성 쪽으로 몸을 기울였기 때문에 바로우에게 향하는 패스 루트가 열렸다.

을 선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수비 상황에서 더 높은 위치를 선점한다면 보다 위협적인 역습을 전개할 수 있다. 영상 속에 담긴 대구전과 수원전에서의 득점 장면,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서 빗셀고베를 상대로 넣은 득점까지, 모두 전복이 오른쪽 진영에서 수비한 후 왼쪽의 바로우를 통해 역습 득점을 일궈낸 것이었다.

공격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윙어

9월에 들어서며 바로우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공격의 마침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본래 바로우는 공격의 마침표보다 후방에서 전방으로 이어주는 심포 역할에 가까운 선수였다. 빌드업 시 측면으로 넓게 벌려있는 탓에, 골문까지 거리가 멀어 지속적인 득점을 만들어내기에 용이한 자리는 아니기 때문이다.

9월 바로우의 득점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바로우는 전복이 공격 1/3 지역으로 볼을 전개시켰을 때 종종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을 자주 보였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모든 공격 상황이 아닌, 득점을 확실시 노릴 수 있는 상황에서만 박스 안으로 들어가 찬스를 노렸다는 점이다.

바로우가 박스 안으로 들어올 경우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순간적으로 대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보통 문전에서 득점을 노리던 선수가 아닌 탓에 인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복에는 바로우 외에도 박스 안에서 신경 써야 할 선수가 많은 팀이다. 공격수 구스타보, 조규성은 박스 안 위치 선정에 뛰어난 선수들이며, 2선의 미드필더까지도 모두 전진하여 득점을 노린다. 계속해서 득점을 노리는 전복의 공격수와 미드필더들을 수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야 뒤편의 바로우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바로우의 이러한 성향은 데이터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앞서 소개했듯 '모든 공격 상황'에서 박스 안으로 진입하는 선수가 아닌 탓에, 바로우가 얻는 득점 찬스 자체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바로우의 9월 한 달 기대득점 값은 2.09xG에 불과했다. 수치만 놓고 보



바로우의 29R 김천전 득점 상황. 득점을 위해 박스로 들어왔다. 김천 수비수들은 바로우에 대한 인지가 전혀 없었던 상황. 오히려 반대편의 구스타보 쪽을 집중적으로 수비했다.

자면 리그 내에서 4번째로 높은 기록이나, 90분당 값으로 환산하면 0.48xG에 지나지 않는다. 출전 시간에 비해 적은 찬스를 제공 받은 것이다. '90분당 박스 안 슈팅' 역시 팀 내에서 8번째(1.22회)에 지나치지 않는다.

바로우의 9월 다득점은 상대적으로 적은 찬스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 단 2.09xG의 기대 득점 속에서 무려 6골을 뽑아냈다. 9월 한 달간 바로우보다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없으며, 2번째로 높은 득점을 기록한 오현규 역시 3골에 불과하다. 여기에 순도 높은 골이 많았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 김천전 동점골, 대구전 선제골, 성남전 결승골, 수원전 역전골이 그 대표적인 예시다. 바로우는 9월 전복 무패행진의 중심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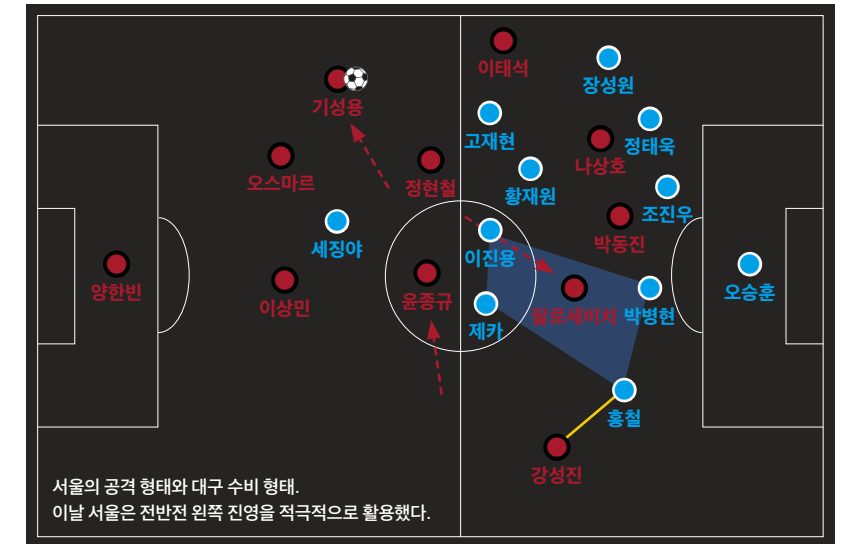
9월의 활약만 놓고 본다면 전복의 우승은 바로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몇 년간 그래 왔듯, 우승의 행방은 파이널 라운드에 돌입해서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바로우가 이번 시즌 우승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전복 팬들은 그의 발끝에서 희망을 보고 있다. **K**





꽃소유(서울) VS 무소유(대구)

전술적 대척점에 있는 두 팀의 맞대결



한결같았던 서울의 방법론 '익수볼'

이날 경기 양상은 서울이 일방적으로 볼을 소유하는 쪽으로 흘러갔다. 서울은 71.3%의 볼 점유율을 기록하며 일방적으로 공격했으나, 단 한 골도 넣지 못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대구는 단 28.7%의 점유율을 유지하며 3골을 내리 득점했다는 것이다. 기대 득점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이날 서울은 단 0.9xG 만의 기대 득점 값을 보인 반면, 대구는 2.86xG를 기록했다. 즉, 서울은 볼을 많이 소유하면서도 찬스를 거의 만들지 못했고, 대구는 적게 소유하면서도 더 많은 찬스를 만들었다는 얘기다.

서울은 늘 그랬듯이, 공격 시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 볼을 점유하는 축구를 보였다. 빌드업 시에는 정현철, 기성용, 팔로세비치가 3MF를 형성하는 4-3-3 형태였다. 이후 서울이 전방으로 볼을 전개할 때면, 팔로세비치가 뒷선으로 올라가 1선 공격 숫자를 늘려줬다. 팔로세비치는 나상호, 박동진과 함께 대구의 수비라인 사이에 위치하며 볼을 받아내려 했다.



볼이 미드필더 진영에 위치할 때 서울의 주요 공략 지점은 왼쪽이었다. 3선 미드필더인 기성용과 정현철 중 한 명이 왼쪽 진영으로 들어 빠져 공격의 시발점이 됐다. 오른쪽 윙백인 윤종규는 중앙으로 좁혀 들어와 부족한 중원 숫자를 메워줬다. 왼쪽 윙백 이태석은 측면을 따라 높게 전진했으며, 중앙의 나상호, 박동진, 팔로세비치는 대구의 수비-미드필드 라인 사이 지역에서 볼을 받아내려 했다. 반대 윙어 강성진은 측면으로 넓게 벌려 서울의 반대 전환 상황에 대비했다.

이날 서울의 주요 공략 지점은 2가지였다. 하나는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다시 말해 대구의 왼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이다. 1v1에 뛰어난 오른쪽 윙어 강성진이 측면으로 넓게 벌려 상대 윙백을 잡아둔다면 자연스럽게 대구의 왼쪽 하프 스페이스가 벌어지게 됐다. 서울이 왼쪽 진영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상황이면, 대구의 수비 진영이 오른쪽으로 밀집됨에 따라 왼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이 더욱 벌어지게 됐다. 이날 서울은 윤종규나 팔로세비치의 움직임을 통해 이 지점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려 했다.

서울이 노린 또 하나의 공략 지점은 상대 수비-미드필드 라인 사이이다. 팔로세비치와 나상호는 이 지점에 위치하여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 계속해서 볼을 받아내려 했다. 대개 공격수 박동진이 상대 수비 라인을 눌러주고, 나상호와 팔로세비치가 그보다 아래에서 공간을 확보하는 형태였다. 서울이 왼쪽 진영으로 공격을 전개할 때는 나상호와 이태석이 상황에 따라 스위칭을 시도하며 나상호가 온 더 볼 상황에 더욱 자주 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전반전 서울 공격 형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를 계속 공략했으며, 나상호-팔로세비치가 라인 사이 지역에서 계속 볼을 받아내려 했다.

서울은 이러한 공격 형태를 기반으로 전방 공격시 2-3-5 대형을 형성했다. 정해진 바는 없다. 상황에 따라 선수들이 유연하게 위치를 선점하되, 공격 시 일관된 대형을 형성하게끔 했다. 핵심은 측면 공격 시 볼 주위 지역에서의 순간적인 로테이션 플레이를 통해 포지션 스위칭을 이뤄내는 것이다. 측면 선수들 간의 순간적인 스위칭을 통해 위치를 공유하더라도, 필드 전반적으로는 일관된 2-3-5 대형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오른쪽의 윤종규가 좁히고 왼쪽의 이태석이 전진해 2-3-5로 전환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나, 상황에 따라 윤종규가 뒷선에 위치할 수도, 또는 팔로세비치가 내려와 3선을 점유할 수도 있었다.

서울이 이러한 공격 형태를 보인 이유는 명확하다. 우선 선수들 간의 위치 변화가 매우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상대 수비에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 여기에 전방에 5명의 선수를 배치한 탓에 많은 전진 패스 옵션을 누릴 수 있으며, 전진 패스가 불가능하여 측면 공격을 전개해야 할 경우에는 앞서 얘기한 순간적인 측면 로테이션 플레이를 시도한다. 이는 안익수 체제의 서울이 계속해서 추구해왔던 공격 방식, 이른바 '익수볼' 이기도 하다.



서울의 2-3-5 공격 형태. 볼이 측면에 위치할 때는 적극적인 로테이션 플레이를 시도하며, 전방에 많은 숫자를 뒀 전진 패스 옵션을 만들어내려 한다.

대구는 익수볼을 어떻게 무력화시켰나

한편, 대구 역시 이날 대형적으로 큰 변화를 주진 않았다. 수비시 5-4-1 대형을 형성했으며, 공간을 지키는데 치중했다. 상황에 따라 상대 박스 지점까지 전진해 전방 압박을 가하기도 했으나 이는 대개 공간을 지키다가 서울을 밀어냈을 때에만 이뤄지는 패턴이었다. 대구 또한 늘 그랬듯 "선 수비, 후 역습" 방식을 고수했다. 대구가 가장 잘 하는 것이다.

이날 대구 수비의 목적은 명확했다. 서울의 중앙 미드필더와 양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한 1선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수비하는 것이다. 수비 대형서 이 선수들을 제어한다면 서울의 중앙 공격 루트를 제한하고 상대를 측면으로 유도할 수 있었다. 만약 서울이 전방서 2-3-5(3-2-5) 대형을 활용할 경우 3선의 기성용과 정현철을,

그리고 1선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한 나상호와 팔로세비치를 집중적으로 수비한 것이다.

대구 미드필더 라인의 폭을 매우 좁게 형성하여 서울의 중앙 미드필더를 집중적으로 수비했다. 기본적으로는 미드필더 라인이 펼쳐진 5-4-1 대형을 형성했지만, 서울의 빌드업이 이뤄질 경우 점진적으로 중앙으로 좁혀 상대 두 미드필더의 공간을 제어했다. 상황에 따라 1선 공격수와 양 윙어까지 상대 중앙 미드필더를 집중적으로 압박하며 서울의 볼 출기를 틀어막았다.

서울의 1선 하프 스페이스 선수는 대구의 좌우 센터백인 정태욱과 박병현이 집중적으로 수비하도록 했다. 이들은 이날 뒷공간보다 자신의 눈 앞 마크맨을 압박하는데 더욱 치중하며 서울이 1선 패스 옵션을 누릴 수 없도록 했다. 이날 박병현(4회)과 정태욱(5회)은 경기 내 최다 그라운드 경합을 시도한 선수였으며, 중앙 센터백인 조진우는 가장 많은 인터셉트(10개)를 기록했다. '박병현과 정태욱이 자신의 마크맨을 강하게 압박하고, 중앙의 조진우가 이를 커버한다'라는 명제가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연히 증명된 것이다.

경기의 승패를 가르는 분기점은 대구의 역습 상황이었다. 이날 서울은 대구의 역습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며, 전반전에만 2골을 내리 내주고 말았다. 대구는 역습 시 3톱에 대한 역할 분담이 명확했다. 중앙 공격수는 전방에서 볼을 받아 연계에 치중하고, 양 윙어가 1선으로 빠르게 쇄도해 들어가 상대 뒷공간을 파고드는 패턴이었다.

대구 미드필더는 볼 탈취 시 전방의 공격수에게 볼을 연결해야 한다는 명확한 목적성을 갖고 있었다. 기본적으로는 세징야가 중앙에, 제카가 왼쪽 측면에 위치한 형태를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 이 둘의 배치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었다. 팀 전반적으로 볼 탈취 시 중앙 공격수에게 볼을 연결한다는 약속이 되어있기에 양 윙어가 곧장 전방으로



대구 미드필더 라인이 중앙으로 크게 좁혀 서울의 중원을 봉쇄하고, 후방 좌우 센터백은 서울의 1선 하프 스페이스 선수를 집중적으로 수비한다.

뛰어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은 이러한 대구 3톱의 역할 분담에 전혀 대응하지 못했다. 공격시 2-3-5를 형성하는 서울의 공격 형태상, '3'에 해당하는 좌우 선수나 최후방 센터백이 자연스럽게 대구의 양 윙어를 상대해야 했지만, 전혀 그러지 못했다. 상대 윙어와의 1v1 구도에서 계속 침

투를 허용했으며, 대구의 중앙 공격수에게도 매우 넓은 공간을 허용하고 말았다.

서울로서는 공격 시에 너무 성급한 것이 화근이었다. 수비 전환 상황에서 상대 윙어의 침투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면 공격 시 일정 부분 로테이션 플레이를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로테이션 플레이를 시도한다면, 순간적으로 공격 조직이 무너지고, 상대 선수들에게 공간을 내주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 중 세징야 또는 제카를 수비해야 할 윤종규가 순간적으로 전진해 이들에게 뒷공간을 내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대구 미드필더의 역습 형태. 이날 대구는 3톱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위협적인 역습을 전개했다.

양 팀 모두 본인들의 색깔을 그대로 가지고 나온 경기였다. 이른바 서울은 '서울'을 했고, 대구는 '대구'를 했으나, 결국 대구가 결과와 내용 모두를 잡은 일전이었다. 대구는 중원에서 높은 기동력과 확고한 수비 플랜을 통해 서울의 공격을 틀어막았다. 그리고 3톱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매우 위협적인 역습 전개를 펼쳤으며, 후반전에 경험 많은 이근호와 이용래를 교체 투입해 경기를 굳히는 운영까지 능숙했다.

이날 서울을 상대로 거둔 완승은 대구에게 단순 승점 3점 이상의 의미가 있다. 가장 대구다운 모습으로 완벽한 경기력을 보이며 거둔 승리였기에, 대구는 이 경기를 통해 자신감과 자존심을 회복했을 것이다. 대구가 결국 이번 시즌 K리그 잔류에 성공하게 된다면, 이 경기는 분명 대구에게 중요한 터닝 포인트로 여겨질 것이다. **K**



강등권에서 살아남기

K리그

이번 시즌 K리그1의 강등권 생존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올해부터 승강팀 숫자가 '1+2'로 개편됨에 따라 최대 3팀(10위~12위)까지 강등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제 파이널B 팀들은 최종 순위를 “한 자리 숫자”로 만들기 위한 치열한 최종 경쟁에 돌입한다. 현재로서는 김천상무, 대구FC, 성남FC, 수원삼성이 그 직접적 영향권에 있으며, 8위 FC서울 역시 완전한 안정권이라 볼 수는 없다.

파이널B 그룹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역시 버랑 끝 강등권 팀들의 처절한 생존 경쟁이다. 파이널B 그룹의 경기를 보고 있다면 그 치열한 박진감에 즐거움을 느끼면서도, 때로는 경기 결과에 따라 처연함까지 느끼게 된다. 특히, 지도자로서 강등권 팀들을 이끌었던 경험이 있기에 강등권 경기에 대한 감상이 더 구체적으로 와닿는다. 당시 경험을 떠올리다 보면 감독과 선수들이 현재 가지고 있을 경기장 너머 고충까지도 짐작이 되어 공감하게 된다.

나는 2016년 인천과 2020년 부산에 감독대행으로 부임하여 강등권 팀을 직접 지휘한 바 있다. 인천과 부산 모두 부임 당시 최하위(12위)에 머물러 있던 팀이었다. 16년 인천에서는 부임 이후 6승 3무 1패를 거두며 잔류의 기쁨을 누렸지만, 20년 부산에는 1승 1무 2패의 성적으로 강등의 아픔을 피하지 못했다. 4경기만으로 강등의 운명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나 싶다.

강등 예상 1순위 팀에 감독대행으로 부임하면서 즉각적인 변화가 필요했던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팀 분위기를 어떻게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을지’였다. 감독이 교체되는 경우, 선수단이 전반적으로 큰 충격에 빠져있기 때문에 선수단 심리 상태 회복이 급선무였다. 다른 하나는 ‘팀의 전술적 방향성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고민이었다. 지금까지의 방식은 결국 팀을 강등권에 위치시키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전술 변화를 통해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올 필요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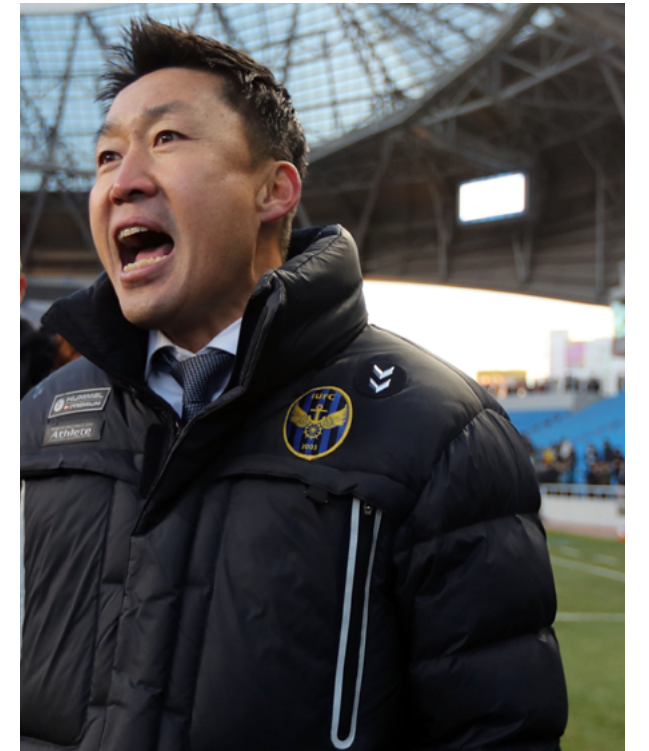
강등권 탈출의 시작은 ‘심리 변화’로부터

가장 우선 되어야 할 것은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파이널 라운드에서의 동기부여는 시즌 초중반과는 다르다. 경기 수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다가, 이번 시즌 우리 팀의 위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선수들에게 다소 허황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다시 이겨내 보자’라는 마인드셋을 심어 줄 수 있다. 이번 시즌 대구의 최원권 감독대행이 9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공개 선언한 것이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선택과 집중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강등권에서 벗어나기 위한 초석이다.

이러한 동기부여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일부 선수들이 팀의 위기 상황에 대해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다. 특히, 출전 기회를 많이 받지 못한 선수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눈앞에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구성원 중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의 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코치진이 선수 한 명, 한 명에 대해 세심하게 믿음을 준다면 선수들은 각자 위치에서 책임감과 의지를 갖게 된다. 구단 프런트의 노력 역시 중요하다. 한 번은 팀 영양사가 과일 컵에 응원의 메시지를 붙여 선수들에게 준 적이 있었다. 비록 사소한 것이었지만 구단이 직접 보이는 믿음의 메시지에 선수들이 감동했던 경험이 있다.

생활면의 변화 또한 선수들의 심리 회복에 필요하다. 강등 위기에 처한 선수들은 필드 위에서 자신의 기량을 100% 펼칠 수 없다.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어 도전적인 플레이를 펼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팀 분위기를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축구에 집중해야 하는 시점에, 축구를 잊고 즐길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축구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선수단 식당을 벗어나 맛집에 가거나, 재미있는 게임을 하거나, 노래방에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당시 훈련 시에도 복잡한 전술 훈련보다는 단순하고 흥미 위주의 훈련을 많이 시도하고자 했다.

팀의 변화에 있어 선수단 미팅은 가장 유용한 수단이다. 미팅의 가장 큰 효과는 선수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우리 선수단의 세세한 정보이다. 선수단을 대표하는 고참 선수들과의 미팅을 통해 현재 선수들이 원하는 팀의 방향성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고참 선수들은 선수단을 대표하여 의견을 내는 만큼 미팅에서 나오는 의견은 최대한 반영해주어야 한다. 한편, 출전 기회를 많이 얻지 못한 선수들과의 미팅에서는 팀의 여러 문제점을 알 수 있다. 그 누구보다 경



가장 바깥에서 우리 팀 경기를 많이 지켜봐 왔고, 또 경쟁 선수들의 플레이를 분석해 왔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우리 팀의 문제 진단이 되어 있다. 어린 선수들과의 미팅에서는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다. 위기 상황에서 출전 기회를 주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지는 선수들도 있으나, 반대로 위기 상황이기에 더욱 자신감을 얻어 120%의 기량을 펼치는 선수들도 있다. 인천 시절의 진성욱, 김진야, 김보섭 등의 선수들이 그 대표적인 예다.

결국 이러한 팀의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의 심리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 팀이 강등권에 머물러 있다면 코칭스태프 역시 자신감이 떨어져 생각의 틀이 좁아진다. 설불리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못하고 기존에 해왔던 것에 막연한 기대를 걸어보곤 한다. 하지만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시각의 확장이다. 선수 기용, 훈련 방법, 미팅 스타일 등에 변화를 주어 기존의 것들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지도자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 지도자가 먼저 자신감을 얻어야 선수들에게 불어 넣어줄 수 있다.

전술 변화는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강등 위기에 놓인 팀에게 전술 변화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 경기 내적으로는 예기치 못한 전술 운영이나 선수 기용을 통해 상대 팀으로 하여금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효과다. 경기 외적으로는 전술 변화 그 자체만으로 선수들의 자신감 회복에 꽤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도 한다. 앞에서는 경기 외적인 노력에 대해 이야기 했다면, 이제부터는 경기 내적인 변화에 대해 나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 해볼까 한다.

앞서 서술했듯 전술 변화는 선수단 자신감의 회복과도 크게 맞닿아 있다. 따라서 선수단 분석 미팅에서는 최대한 우리 팀 선수들이 잘했던 장면을 위주로 보여줘야 한다. 피드백 과정에서 못했던 장면에 대한 개선 사항을 말해주기보다는, 좋았던 플레이를 계속 보여줘 자신감을 향상시켜야 한다. 상대 팀보다는 우리 팀 분석에 더욱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내실을 다지는 것이다. 물론 상대 팀 분석 역시 소홀히 하진 않는다. 코칭스태프 선에서 철저히 분석해 경기 내 상황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선수들이 본인들의 플레이를 토대로 경기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술 변화 역시 최대한 간단하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위기 속에서 사령탑이 바뀐 만큼 팀에 경기 내적인 변화는 줘야 하나, 당장 복잡한 전술을 채용하진 않는 것이다. 그러한 전술이 팀에 녹아들 시간이 충분치 않을뿐더러 선수들이 이해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선수들의 머릿속이 복잡해진다면 경기력에 차질이 생긴다. 동기부여를 통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마음가짐만큼은 확실히 확보했다면, 선수들이 이해하기 쉬운 간단한 전술을 채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가령 내 경험을 예로 들자면 2016년 인천에서는 기존 3-4-3에서 4-3-3로 변화를 줬다. 시즌 종료까지 10경기가 남은 시점에서 다른 팀들과의 승점 차가 컸기 때문에 도전적인 전술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포메이션 상 도전적인 운영에 용이한 백4로 전환하는 선택을 했다. 전체적으로 라인을 올려 전방과 미드필드 지역에서의 압박을 통한 득점을 노렸다. 이를 위해, 당시 미드필드 1/3 지역에서부터 4-1-4-1 대형으로 수비를 시작해 상대를 강하게 압박했다.

선수 기용에 있어서는 두려움이 없는 선수들을 적극 활용하여 도전적인 운영을 펼치려 했다. 김진야, 김보섭, 진성욱 등의 어린 선수들이 그 주인공이다. 중원에는 경험 많은 배승진을 기용해 팀의 중심을 잡았다. 당시 배승진은 갓 전역해 팀에 적응할 시간이 짧았

지만, 원하는 부분을 곧바로 잘 이행해줬기 때문에 믿고 기용할 수 있었다.

2020년 부산에서는 전술적으로 큰 변화를 주진 않았다. 시즌을 4경기만을 남겨놓고 감독대행직을 맡았기 때문에 기존 포메이션과 전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더욱 좋다고 판단했다. 부산은 본래 수비적인 스타일이 아닌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해왔던 터라, 인천 때와는 반대로 경기 방향성에 있어 큰 변화를 주지 않았다.

지금 돌이켜보면, 조금 더 냉정하고 과감한 판단으로 선수 기용과 전술 변화를 시도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전술적으로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팀에 안정감이 있었지만, 분위기 전환이 작게 일어나면서 상황을 반전시키진 못했기 때문이다.

K리그 강등권은 그야말로 피 말리는 전쟁터 그 자체다. 당시를 떠올리면, 어떻게 그 압박감을 견디어 냈는지 아찔한 감정이 들기도 한다. 모든 팀이 필사적이고 간절하며,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하지만 냉정하게도 매년 강등팀은 나오기 마련이다. 이번 시즌에도 여지없이 강등과 잔류의 기로에 선 팀들이 있다. 이제 파이널 라운드가 다가온다. 치열하고도 냉정한 강등권 전쟁을 펼칠 그들에게 생존 경쟁의 선배로서 무한한 응원과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 **K**



기술위원 칼럼
이 기 형

- 2011~2014 FC서울 코치
- 2015~2016 인천유나이티드 수석코치
- 2016 인천유나이티드 감독대행
- 2017~2018 인천유나이티드 감독
- 2019~2020 부산아이파크 코치
- 2020 부산아이파크 감독대행
- 2022~ 한국프로축구연맹 TSG기술위원



강원FC의 '파이널A 진출', 기적이거나 요행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개월 전, 강원FC는 K리그1과 K리그2의
경계선에서 위태롭던 팀이었다. 대전과의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1-0 패배를 당해 강등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으나,
4일 뒤의 2차전에서 4-1 승리를 거둬 극적인 K리그1 잔류에 성공했다.
특유의 승부사 기질을 발휘하여 소방수 노릇을 제대로 해냈음에도,
사실상 정규 라운드 2경기만을 남겨 놓고 부임했기 때문에,
강원의 잔류를 최용수 감독의 역량보다는 '기적'으로 여기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최용수 감독은 강원을 파이널A에
진출시키며 보란 듯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있다. 최용수
감독의 강원은 두터운 5백을 바탕으로 수비적인 축구를
구사한다는 인상을 주기도 하지만, 리그 내에서 3번째로
높은 득점(47골)을 기록하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최용수 감독의 본격적인 첫해인 이번 시즌, 그가
바꿔놓은 강원 축구의 면면을 들여다보자.

최용수 감독의 1순위 목표, '수비 의식' 기르기

지난겨울 동계 훈련지에서 만난 최용수 감독은 K리그 TSG와의 인
터뷰에서 강원의 1순위 개선 사항으로 '수비 의식 상승'을 말했다.
전임 김병수 감독의 전술 스타일상 높은 볼 점유율을 추구하는 탓
에 선수들의 수비 의식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었다.
실제로 '김병수 4년차'를 맞이한 지난 시즌 강원은 K리그 내에서 가
장 볼을 잘 소유하는 팀 중 하나로 손꼽혔었다.

최용수 감독이 말하는 '수비 의식'이란 단순히 간격을 좁혀 타
이트한 수비 진영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좁은 간격은 기본이며,
그 안에서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강한 압박을 가하는 것을 말한
다. 한 발자국 더 뛰어 상대를 압박하고, 공간을 커버하는 것이다.
내려서 수비하더라도 자신들의 수비 진영 속에서 강도 높은 압박
을 통해 상대 공격을 저지해야 한다. 최용수 체제의 강원은 '클리어
링(36.2회)', '차단(19.2회)', '획득(52.4회)', '블락(22.5회)' 등의 수
비 지표에서 모두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시즌 강원은 선수단에 큰 변화를 주지 않았다. 팀의 주축
선수들은 지난 시즌과 비슷하지만, 플레이 스타일에 큰 변화를 주
며 최용수 감독의 색채를 입혔다. 이제 강원은 점유보다는 수비에
더욱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팀이다. K리그 내에서 3번째로 적은 평
균 패스(388.8회)를 시도하며, 점유율 역시 단 42.4%(10위)에 지



강원은 중원에 타이트한 5-4-1 대형을 형성하고, 이 속에서 상대를 강하게 압박한다.

나치지 않는다. '병수불'의 색체가 가장 짙었던 지난 2019년 강원 의 볼 점유율이 58%였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매우 큰 폭의 변화 를 맞이한 것이다.

강원은 수비 시 기본적으로 5-4-1 대형을 형성한다. 미드필드 1/3 지점으로 내려서 수비를 시작하며, 타이트한 간격은 기본이다. 강원 5-4-1 수비의 역할 분담은 명확하다. 미드필더 라인은 중앙에 폭 좁게 형성하여 상대 3선 라인을 강하게 압박한다. 강원의 워어 는 하프 스페이스 쪽을 전담하거나 상대 윙백이 후방에서 볼을 받 아낼 때 수비에 나선다. 미드필더 라인이 하프 스페이스 쪽을 잡아 주는 탓에, 후방의 윙백은 측면을 전담할 수 있다. 상대 공격을 측면 으로 몰아냈을 때 빠르게 압박을 나설 수 있는 것이다.

대개 전방의 중앙 공격수와 양 워어가 압박의 시발점이 된다. 중앙의 이정협은 경기 중 계속 손짓하며 1선에서 수비를 조율한다. 이정협은 진영을 정비할 때와 압박을 나서야 할 때를 잘 아는 선수 다. 양 워어가 상대 윙백을 압박하려 나설 때, 주변의 중앙 미드필더 와 윙백이 이를 지원한다. 윙백은 상대 측면 선수를 함께 압박해 볼 소유자의 패스 옵션을 제한하며, 중앙 미드필더는 이런 윙백의 배 후를 커버해 공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수비 형태를 갖춘 강원의 이번 시즌 실점 기록은 흥미롭 다. 강원은 이번 시즌 33경기에서 47실점을 허용하며 리그에서 4 번째로 많은 실점 수를 기록하고 있으나, 기대 실점 값은 단 38.3골 에 불과하다. 이는 리그에서 4번째로 낮은 수치다. (강원보다 낮은 기대 실점 값을 기록한 팀은 울산과 포항, 제주가 유일하다.)

강원의 공격은 결코 단조롭지 않다

이번 시즌 강원의 특징은 낮은 점유율을 기록하면서도 단조로운 공 격 패턴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점유율이 낮은 팀은 확실한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 탓에 단조로운 공격 패턴을 보이는 것이 일 반적이다. 하지만 리그 내 점유율 10위인 강원은 결코 단조로운 공 격을 보이지 않는다.

이는 지난 시즌과 비교하여 선수단 구성이 큰 폭으로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비록 이번 시즌 강원이 점유 축구 를 구사하지 않더라도, 지난 시즌까지 김병수 감독 아래서 '볼을 소 유하는 축구'를 해왔던 선수들은 여전히 점유 상황에 능숙하다. 점 유 상황에서 자신의 템포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은 원하는 공격 형 태를 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후방 3명의 센터백은 직접 볼을 몰 고 전방으로 전진할 수 있으며, 서민우, 김동현, 황문기 등의 미드필



이번 시즌 강원의 빌드업 형태. 3-2-5로 빌드업을 전개한다.

더는 밀집된 중원에서 볼을 소유해 줄 수 있는 선수들이다.

강원은 빌드업 시 3-2-5 대형을 형성한다. 기존 3-4-3에서 양 윙백이 높게 전진한 형태다. 좌우 센터백은 상대 1선 라인을 넘어선 지역, 다시 말해 상대 미드필더 라인을 직접 끌어낼 수 있는 곳에서 볼을 받아 빌드업의 시발점이 되고, 양 윙백은 전방으로 높게 전진 해 상대 수비 라인과 직접 맞닿는다. 상대가 후방으로 깊게 내려왔 을 때면 중앙 미드필더 한 명을 올려 전방에 최대 6명까지 숫자를 배치하기도 한다.

빌드업 시 강원의 양 워어는 우선 연계에 치중한다. 하프 스페 이스를 점유하며 상대 라인 사이 지역에서 볼을 받아내려 하는 것 이 1차 목표다. 이 경우 상대 윙백을 끌어들이 수 있으며, 우리 편 윙 백에게 침투 루트를 열어줄 수도 있다. 강원의 윙백 정승용과 김진 호는 전방에서 상대 수비 뒷공간 침투에 능한 선수들이다.

강원이 공격 1/3 지점으로 볼을 전진시킬 때면 양 워어가 볼 주 위 지역으로 밀집한다. 이 경우 볼 주위 지역에서의 패스 옵션을 확 보할 수 있으며, 반대 워어가 좁혀오는 탓에 상대 측면 수비를 끌어 들어 반대 윙백에게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다. 반대 윙백까지 박스 안으로 쇄도해 직접 득점을 노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다. 한편 중앙 공격수는 상대 센터백 사이에 박혀 동료들에게 공간 을 열어주거나, 박스 안에서 측면 크로스의 옵션이 되어준다. 강원 은 워어와 중앙 공격수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선수 개인 의 강점을 살렸다.



강원은 공격 1/3 지점에서 좌우 진영 간의 전환을 빠르게 활용한다.

강원은 공격 시 좌우 진영 간의 전환을 매우 빠르게 활용하는 편이다. 기점은 좌우 센터백과 양 윙백이다. 대개 반대 하프 스페 이스에 위치한 센터백이 볼을 받아내 반대 전환을 이뤄내는 방식이 다. 윤석영, 임창우, 김영빈, 서민우로 이뤄진 강원의 센터백 자원은 모두 전진성을 갖춘 선수들이다. 전방에서 직접 볼을 받아내 빌드 업을 주도할 수 있으며, 동료들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이 패스 옵션 이라는 사실을 어필하기도 한다.

반대 전환을 이뤄낸 강원은 중앙 지역으로 빠르게 볼을 투입할 채비를 한다. 좌우 진영을 빠르게 전환하다 보면 상대 수비에 틀어 생기기 마련이다. 박스 안 공격수를 순간적으로 놓칠 수도 있고, 중 원에 공간을 노출할 수도 있다. 영상의 제주전 장면을 되돌아보자. 강원이 왼쪽 센터백을 연결점으로 삼아 반대편 윙백까지 볼을 전개 하는데 성공했다. 제주의 중앙 미드필더가 강원의 진영 전환에 대 응하는 과정에서 시선이 측면으로 쏠리게 됐으며, 이는 중원의 서 민우가 공간을 얻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 서민우는 곧바로 볼을 받아 위협적인 중거리 슈팅을 뽑아내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번 시즌 강원의 특징력이 빛을 발하는 이유는 역시 '속 공'이다. 최용수 감독은 '소유'라는 강원의 장점 위에 속공이라는 옵션을 강력한 무기로 장착했다. 강원 속공의 최대 무기는 명실상부 김대원과 양현준이다. 김대원은 올 시즌 현재 최다 공격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달의 영플레이어 4회 수상자인 양현준은 최근 A 대표팀에 발탁되기도 했다. 이들의 활약을 토대로 지공의 이미지가 강했던 강원이 속공에 최대 강점이 있는 팀으로 변모한 것이다.

앞서 서술한 공격 패턴 외에도, 강원은 측면에서 상대 박스 안 으로 볼을 투입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곤 한 다. 이때는 중앙 미드필더와 양 윙백이 주인공이 된다. 3톱이 상대 박스 안에서 득점을 노리기 위해 경합한다면 중앙 미드필더와 윙백



강원은 상대 박스 지점으로 볼을 투입할 때 주변 선수들의 쇄도 속도가 빠르다.

이 추가적으로 가담해 세컨볼을 노리는 것이다. 강원은 상대 박스 안으로 볼을 투입할 때 선수 개개인의 침투 속도와 적극성이 매우 뛰어난 팀이다.

이번 시즌 최용수 감독의 강원은 "육각형을 만들어가는 팀"이 라 할 수 있다. 지난 4년간 김병수 감독의 지도하에 얻게 된 강원의 장점은 덜어내지 않으면서 최용수 감독이 지적인 '수비 의식'과 이 번 시즌 최대 강점인 '속공 능력'을 더했다. 최용수 감독의 지휘 아 래 지공, 속공, 수비 등 무엇 하나 빠짐없이 평균 이상의 능력을 내 는 팀이 된 것이다.

강원은 이제 구단 사상 최고 성적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에 올 랐다. 파이널A에 오른 이상 매 경기 강팀과 경기를 치러야 하기 때 문에 쉽지만은 않다. 최용수 감독 또한 "현재 강원은 파이널A에 갈 전력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낮춰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작년 승강 플레이오프의 강원이 한 시즌 만에 파이널A로 진출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파이널 라운드에서 강원이 올해도 '기적'을 보일 수 있 기를 기대해본다. **K**





K LEAGUE

2022 K LEAGUE
TECHNICAL REPORT
TSG MONTHLY
MAGAZINE

